

# 광주 예산반영 달랑 1.5%... 전남 7개 사업 첫 발도 못떼

## 박근혜 정부 지역 대선 공약사업 줄줄이 물거품 위기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전남의 지역 공약사업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 마춤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MB정부 때에도 지역 대선공약 중 완료된 사업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책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7건, 전남에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 등 11건의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가운데 극히 일부 기반시설 관련 사업만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광주·전남도와 정부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광주시, 대선공약 예산 중 겨우 1.5% 반영=광주시에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 예산은 국비만 3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1.5%수준인 542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특히 자동

### 대부분 정부 부처서 싹둑

### 임기내 마무리 사업 없을 듯

### MB때도 26건중 1건 완료

### 호남 홀대·불균형 가속화

차 100만대 생산기지 예산과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의 예산은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으며, 아시아 문화수도 육성 사업은 국비 2527억원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콘텐츠 개발비로 2013년도에만 겨우 2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비로는 국비 1492억원 중 2013년도 160억원, 2014년도 120억원 등 280억원이 짚금 지원됐으며,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로 국비 4481억원 중 2013년도 108억원, 2014년도 27억원이 배정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도 정부의 국비 반영액까지 포함하더라도 504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전체 대선 공약 예산 중 국비 반영률은 3%에 불과하다. 그나마 위안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5·18 아카이브센터 건립 등) 국비 125억원이 지난 2년동안 모두 배정 완료



U대회 성공개최 '이상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상황 보고회가 24일 오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화관광, 숙박박건, 환경, 도시디자인, 교통건설, 시민참여, 소방안전 등 시차원의 분야별 대회지원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된 점이다.

◇전남지역 11개 대선 공약 사업 중 7개 사업 외면=전남도의 상황도 심각하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400억원이 반영됐으나 노선 갈등으로 이월될 예정이며,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으로 600억원을 책정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년간 예산 반영액은 겨우 600억원인 셈이다. 준공시점이 2017년인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3조 15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암·해남 관례저형기암도시 진입도로 개설도 지난해 49억원에 이어 올해 정부 반

영역이 100억원에 그쳐 전체 사업비인 2756억원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구축사업은 타당성 제조사 및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4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철도(보성~임성) 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사업비 1조1770억원),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구축(285억원) 등은 내년 예산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전남 사업마저 정부부처에서 홀대하면서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교해도 지나치게 예산 반영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지역 고립 및 쇠퇴가 현실화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MB정부 이어 호남 홀대=이 같은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 공약 사업 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모두 26건의 공약 사업 중 사실상 4대강 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1건만 최종 완료됐다. 5건의 공약 사업은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0건의 공약사업도 수 억원 안팎의 기본 용역비 정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도 현 추세라면 대부분의 대선 공약 사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2014년도 한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정부 예산 반영률이 각각 88%와 63%인 반면 광주·전남은 각각 38%와 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호남권의 예산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정현, 공직인사 지역차별 금지... 권은희, 공익 제보자 보호

지난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지역 새내기 의원들이 1호 법안을 야심 차게 내놓거나 내놓을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은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인사의 임용, 보직관리, 승진과 관련한 원칙을 담은 현행법 조항에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 또는 우대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와 관련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담양·함

### 지역 새내기의원 1호 법안은?

### 이정현, 혁신도시·지역 상생

### 이개호, 지방화 촉진 기본법

평·영광·장성)은 국가가 정책 추진 과정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방화촉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은 행정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고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적·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

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자신의 나주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간과 지자체의 상생 협력기구 설치를 골자로 ▲관·산·학 협력 및 지역인재 채용 ▲지역 및 이전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발전포럼 개최 ▲이전기관과 지자체 주민을 위한 화합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와 발전전략 계획 연구 및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은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까지 사랑했던 단원



(84) '남자의 물건'

며칠 전 한 증권사 미래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의 순위가 남성은 건강, 배우자, 돈인데 반해 여성은 건강, 돈, 배우자 순으로 꼽았던 것이다. 이래저래 여자와 남자는 좀 다른 구석이 있나 보다.

심리학자인 김정은 여러 가지 문제연 구소장이 저서 '남자의 물건'에서 "한국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라고 했던 분석이 떠오른다. 그는 여성과 남성의 의식 차이를 '이야기'에서 찾는다. 오늘날 '인간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

려고 생각한다'는 이른바 '내러티브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한국 남자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자들은 그릇, 옷, 보자기 등 자신이 쓰거나 지닌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 삶의 의미와 이야기를 채워 넣는다. 남자들은 대개 자신을 둘러싼 물건들에 무심경한 편이다. 하지만 단원 김홍도도 그런 남자가 아니었던 듯하다.

단원 김홍도(1745~1806?)의 작품 가운데 이야기 거리가 풍부한 '남자의 물건'을 그린 그림이 있다. 단원의 자화상이기도 한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를 볼 때마다 단원의 마음 속에 차올랐을 듯한 이야기가 느껴진다. 가름하고 반듯한 얼굴, 총명한 눈빛, 당비파를 연주하는 앞쪽에 생황까지 놓여 있어 음악을 애호했던 일상이 짐작된다. 주변에 문방사우와 서적, 완상용 자기와 청동기, 술 담긴 호리병과 옛 시인이



김홍도 작 '포의풍류도'

시를 썼다가 그냥 개울물에 띄워버렸다는 파초 잎까지... 저서 '단원 김홍도'를 남긴 미술사학자 오주석은 "사방관을 썼으니 예를 아는 선비로되 드러난 맨발로 초탈한 심사를 엿보게 하니, 그 마음은 단원에 쫓겨 그어낸 화폭 속 윤곽선과 꼭 닮았다"고 언급한다.

'포의풍류도'에서 술의 흥취와 자기의 맛, 음악의 풍류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삶과 낭만을 본다. 단원은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www.photonicskorea.org

전시회 문의  
2014국제광산업전시회 사무국  
사업지원부 담당자 조 현 상  
Tel. 062-605-9631

Photonics KOREA 2014

光 ICT 미래 문화콘텐츠의 혁신

제 13회 2014 국제 **빛** 산업전시회에

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4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10.6<sup>월</sup>-10.8<sup>수</sup> 김대중컨벤션센터

- 삼성전자, 금호전기, 동부라이텍, LG이노텍(LG전자) 등 국내외 168개 업체·기관·단체 344개 부스 참가 확정
- 24개국 161명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세계 석학초청 최첨단 기술 및 시장트렌드 조망 광융합기술컨퍼런스 개최
- 광산업 육성 지원기관 전시·홍보관 구성 및 10개 지원기관 17개 세미나 병행 개최
-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제 마케팅 전략 세미나(미주, 덴마크,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CIS)
- LED·에너지·도로 담당공무원 초청 워크숍(LED보급 확산)
- 호남권 링크사업단·산학협력단 홍보관 구성
- 공동브랜드(LUXKO) 및 광산업육성·지원기관 홍보관 운영
- OLED 테마관 운영, 시민 참여 체험·볼거리 특별전 (옥외광고물 수상작, LED/OLED 미디어아트 특별 전시)

● 사전 참관 신청안내 | 전시회 홈페이지(www.photonicskorea.org)에서 사전 참관 등록을 하시면 간단한 확인 후 전시회장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주관 **KAPID** 한국광산업진흥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공주광역시

후원 **한국연세산업진흥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